

대학평의원회

- 1. 회의제목 : 대학평의원회(2025.04..30.)
- 2. 회의일시 : 2025-04-30 수 13:30 ~ 15:00
- 3. 회의장소 : 3층 회의실

4. 참석인원

구분	인원	성명
참석인원	10명	정인호, 김보나, 이갑래, 구자경, 송호준, 정태진, 조종건, 김훈, 백운, 김호경
불참인원	3명	구본영, 오세준, 신유성

5. 회의안건

- 가. 의장 선임
- 나. 교무위원 직무평가 관련

6. 내용첨부 : 대학평의원회 회의록_20250430.pdf 별첨

7. 의 견

(동의)김훈 : 확인완료

위의 사실을 확인함.

2025.04.30

부 의 장	정 인 호	2025/05/08	확인
위 원	이 갑 래	2025/05/08	확인
위 원	구 자 경	2025/05/02	확인
위 원	송 호 준	2025/05/23	확인
위 원	정 태 진	2025/05/07	확인
위 원	조 종 건	2025/05/02	확인
위 원	김 훈	2025/05/03	확인
위 원	백 운	2025/05/07	확인
위 원	김 호 경	2025/05/30	확인
간 사	김 보 나	2025/05/07	확인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회의소집 통보일자	2025. 04. 28.(월)
위원정수 : 13명	재적위원 : 11명

1. 회의일시 : 2025. 04. 30.(수) 13:30

2. 회의장소 : 본관 3층 회의실

3. 참석여부

구분	성명	비고
참석인원 (9명)	(의장) (부의장) 정인호 (교원) 이갑래, 구자경, 정태진, 송호준 (직원) 백운 (위촉) 김훈, 조종건 (조교) 김효경 (학생)	간사: 김보나
불참인원 (2명)	오세준, 신유성	

4. 안건

가. 의장 선임

나. 교무위원 직무평가 관련

5. 회의내용

김보나 간사(이하 "간사")가 대학평의원회 재적인원 11명 중 9명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됨을 보고하고, 정인호 부의장 겸 의장직무대행이 회의를 개최하다.

정인호 부의장 겸 의장직무대행이 작고한 구분영 전 의장을 추모하며 묵념을 제안하였고, 전체 의원이 함께 묵념을 진행하다.

가. 의장 선임

정인호 부의장 겸 의장직무대행이 의장 선임 안건에 대해 설명하다. 이전 대학평의원회 의장을 교수대표 중 연장자가 의장을 맡아온 관례가 있음을 설명하고, 이갑래 의원을 추천하다.

모든 의원이 동의하여 이갑래 의원을 의장으로 추대하다.

나. 교무위원 직무평가 관련

정인호 부의장이 먼저 교무위원 직무평가 관련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이갑래 의장에게 자리를 양보하다.

장희선 기획경영본부장과 이석윤 기획경영부분부장이 배석하여 교무위원 직무평가와 관련한 대학 본부 측의 의견과 입장에 대해 설명하다.

장희선 기획경영본부장이 사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무위원 직무평가를 진행해왔음을 알고 있으나, 설문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명백하지 않고, 과거 전례가 없던 설문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다. 또한 기획예산실이 대학평의위원회의 간사 부서이나, 실제 본 설문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설문의 항목과 관련하여, 직무의 수행에 대한 내용이 아닌 정성적인 항목이고,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개하거나 파악이 충분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 대학 구성원에게 설문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음을 설명하다.

이어 대학평의위원회와 대학 본부 간 합의를 통해 행정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으나, 현재의 방법과 같이 진행되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함을 설명하다.

추가적으로 이석윤 기획경영부분부장이 직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직무에 대한 이해와 그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이 필요한데, 현재의 설문으로는 막연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장희선 기획경영본부장 및 이석윤 기획경영부분부장이 퇴장하다)

이갑래 의장이 현재 대학 본부에서 제기된 의견이 첫 번째로 기획예산실에서 현재의 설문을 수행할 수 없다는 방법에 대한 문제와 두 번째로 총장 설문이 현재의 규정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사항임을 정리하여 설명하고, 각 의원의 의견을 묻다.

정태진 의원이 설문문항에 대하여는 교무위원 직무평가 위원 9인이 함께 검토하여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 여러 차례의 논의를 걸쳐 작성하였으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 설문을 작성하였음을 설명하다. 또한 방법적인 내용으로는 전산지원팀에 시스템 개발을 요청하였으나 어려워, 기획예산실의 협조를 통해 명단을 확보하여 수행하자고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음을 설명하다. 또한 이전에 교무위원 직무평가에 대한 논의, 방법에 대해 진행된 경위와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다.

구자경 의원이 설문을 진행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나, 대학

본부에서 문항의 내용과 관련한 이의를 제기한 바, 대학 구성원에게 설문할 문항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 수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갑래 의장이 먼저, 설문 방법을 기획예산실에서 진행이 불가하다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다.

간사가 방법과 관련하여, 교수 직원에 대하여는 대학평의원회에서 대표 이메일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나, 학생과 관련하여는 기획예산실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어 학사지원팀에 협조 요청을 하고자 협조조건을 작성하게 되었고 결재과정에서 본 이의제기가 있었음을 설명하다.

백운 의원이 본 교무위원 직무평가는 2024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연말에 종료되어야 하나 현재 5월에 이르고 있음을 설명하다. 그런데 현재 설문 문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논의는 별개로 진행하도록 하고, 현재 제출된 교무위원 직무평가 자체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교무위원 직무평가를 수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송호준 의원이 직무평가의 취지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또한 평가의 내용이 합리적으로 마련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 다시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대학평의원회서의 일방적인 설문보다는 본부에서의 이의제기가 있으므로 직무 분석 등 방법적인 합의를 거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김효경 의원이 평가대상자와 평가를 논의하는 것이 부적절하고, 이전의 논의를 거쳐 수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체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다.

구자경 의원이 평가와 관련하여 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 평가대상자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문항을 재검토하여 수행하자고 제안하다.

조종건 의원이 설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논의인데, 대학 본부에서 그 지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대학 본부와의 논의를 거쳐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갑래 의장이 2024년도에 대한 자체평가를 진행하고, 이후 규정 개정을 거쳐 하반기에 2025년에 설문을 수행하는 것을 제안하다.

정태진 의원이 올해 말은 총장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이므로 정치적인 영향이 있으므로 현재 수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구자경 의원이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전체 대학평의원회가 아닌 교무위원 직무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에서 본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설문 문항을 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김훈 의원이 현재까지 논의하여 결정된 사항이 있으므로 설문을 진행하자는 의견과, 평가위원회에서 본부의 제안에 대해 검토하여 수행하자고 하다.

이갑래 의장이 교무위원 직무평가를 이전의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한다면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나, 현재는 새로운 평가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으므로 전체 대학평의원이 함께 논의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교무위원 직무평가는 직전연도의 평가결과를 차기년도에 적용·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현재는 차기년도 5월에 이르는 시점이므로 평가의 효용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정태진 의원이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원이 각 단체의 대표이므로 각 단체에 대해 설문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백운 의원이 현재의 설문 문항은 직무평가보다는 다양한 질문을 통해 평가에 참고하자는 것인데, 2024년도 평가에 대해 2025년도에 설문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2024년도 평가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송호준 의원이 객관적 지표로서의 평가, 직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현재의 문항은 주관적인 평가이므로 만족도와 직무평가를 분리하여 설문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구자경 의원 또한 현재의 문항이 인기투표나 만족도 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정태진 의원이 문항 작성과 관련하여 연세대학교 총장평가를 대부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며 우리 대학에 적합하지 않은 문항만 제외하여 작성되었음을 설명하다.

이갑래 의장이 교수와 직원의 경우, 본 설문에 대해 배경지식을 갖추고 있으나, 학생들의 경우에는 설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정인호 의원이 설문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부서의 도움없이 수행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문항에 대한 대학 본부의 이의제기에 대해 협의를 통해 조정하고 행정부서의 협조를 통해 수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김효경 의원이 학생들의 설문 수행과 관련하여, 학생대표가 동의한 바 있으며, 학생에 대한 설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또한 이에 대비하여 평가위원회를 통해 각 문항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는 보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음을 설명하다. 더불어 현재 총장

설문은 교무위원 평가의 참고자료로 작성하여 활용하자고 했으므로 그 활용이 분명하다는 의견과 함께 총장 설문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조종건 의원이 연세대학교와의 설문 방식의 차이가 있어 6번 보기(잘모르겠다)를 추가하여 보강하였으나, 정인호 의원의 의견처럼 새로운 의장님이 대학 본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송호준 의원이 설문의 제목과 내용이 부합하지 않으므로 변경하자고 제안하다. 이에 김효경 의원이 “총장 직무평가를 위한 구성원 설문조사” 로 변경하자고 제안하다.

정인호 의원이 교무위원 직무평가의 틀과 세부적인 내용, 방법 등에 대해서는 대학평의회 전체가 함께 논의를 통해 결정하자고 제안하다. 또한 조종건 의원이 평가위원회에 국한하지 않고 전체 대학평의회가 함께 논의하여 최종 결정을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다.

이갑래 의장이 각 의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현재의 설문 제목을 “총장 직무평가를 위한 구성원 설문조사”로 변경하고, 대학본부의 의견을 청취하여 설문을 수행하도록 하며, 차기 회의에 학생대표를 포함하여 설문 수행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자고 하다. 이에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차기회의를 5월7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으로 정하자는 의견에 모든 의원이 동의하다.

6. 폐회

본 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었으므로 폐회하자는 의장의 건의와 전체 의원의 동의·재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15시에 폐회하다.

2025년 04월 30일



< 2025.04.30. 대학평의원회, 본관 3층 회의실 >